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뒤흔다요.

: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 화자의 처지

사투리 사용, 반복

뒤흔다요. 산 아래

들빛만 저리 고우면 뒤흔다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그늘도 다 도망가불고

시간의 경과, 저녁

산 아래 집 뒤편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당신이 안 오는데 뭘 헛짓이다요.

-->임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에서 본 아름다운 자연의 덧없음

저런 것들이 다 뭘 헛짓이다요.

⇒ 아름다운 자연의 부질없음

뭘 소용이다요 어둔 산머리

어두운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뒤흔다요.

그리움의 대상

마른 지푸라기같은 내 마음에

화자의 생기 없는 마음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내면의 상처

저 달 금방 저물면

저물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텅디

⇒ 이별 후의 암담하고 막막한 상황

화자의 암담한 마음 비유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임을 기다리는 자신의 처지를 자조적으로 표현

이 가을 다 가도록서리 발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임이 떠난 현실의 외로움, 괴로움 화자의 분신, 임을 기다리는 모습

뒤흔다요, 뭘 소용이다요.

⇒ 부질없이 기다리는 막막한 자신의 처지

구절의 반복, 임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강조



성 격 : 애상적, 독백적

정 서 : 그리움, 원망

주 제 : 임이 없는 현실의 막막함

특 징 : ① 아름다운 자연물을 화자의 심정과 대조적으로 제시

② 사투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해 설

이 작품은 가을이 다 지날 때까지 서리 내리는 들판에 피어 있는 ‘들국’의 모습을 통해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 안타까움과 원망의 정서를 보여 주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단풍’, ‘억새꽃’, ‘물빛’, ‘초생달’ 등의 아름다운 자연물들은 ‘마른 지푸라기’, ‘허연 서리’, ‘어둠’ 등으로 대변되는 화자의 심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을 풍경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임이 부재하는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임에 대한 화자의 애정과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뉘헌다요’, ‘뉘 소용이다오’ 등의 반복을 통해 돌아오지 않는 당신을 향한 화자의 원망과 아쉬움, 안타움과 기대 등의 정서가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